

2010. 2. 1 제232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동향

2010. 2. 1 제232호

목 차

문화·디자인

1. 도시 간 갤러리 교환방문 전시회 개최 (베를린)

산업·경제

2. 연간 450만 명 이상 관광객 유치 (뉴욕)
3. 제조업체 유통세 감면제도 기간 연장 (브라질 상파울루州)
4. 광역지역을 문화도시지역으로 지정해 경제 활성화 도모 (영국)
5. 市 포털사이트를 관광마케팅회사와 공동 운영 (베를린)
6. 엑스포 기간에 외국인 대상 홈스테이 프로그램 시행 (상하이)

건강·복지

7. 지역의료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제휴 수첩’ 시범 운영 (도쿄)
8. 음식점 영수증에 칼로리 표시제 도입 (뉴욕)
9. 트랜스지방 사용 엄격하게 제한 (캘리포니아州)
10. 저소득층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한 연구결과 발표 (런던)
11. 노인에게 지급하는 동계 연료보조금 적극 홍보 (런던)
12. 노숙자 자립지원센터 설치 (도쿄)

목 차

행정·재정

- 13. 아이티 대지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부운동 전개 (뉴욕)
- 14. 온라인으로 미공개 도시정보 공개 (런던)

방재·안전

- 15. 화재 대응시간을 줄여 사망자 수 15% 감소 (뉴욕)
- 16. 외국인을 위한 방재훈련 실시 (도쿄)

도시환경

- 17. 성년식 참석자를 대상으로 '에코 캡' 운동 전개 (일본 사이타마市)
- 18. '승용차 대신 공공교통 이용하면 온실가스 감소' 교육 실시 (일본 가나자와市)

도시교통

- 19. 도로공사 허가제를 도입해 교통정체 해소 추진 (런던)
- 20. 음주운전 단속 강화로 여성 음주운전자 적발건수 증가 (상파울루市)
- 21. 엑스포 기간에 시행할 교통정책 마련 (상하이)

1. 도시 간 갤러리 교환방문 전시회 개최 (베를린)

○ 베를린市는 도시 간 예술교류의 일환으로 베를린의 갤러리와 외국 도시의 갤러리가 교환방문 형식으로 상대 도시에서 전시회를 여는 ‘갤러리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추진함. 市는 갤러리가 개별적으로 진행한 외국 전시회가 대부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고 베를린에 있는 갤러리가 외국 전시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고 교류도시 간 지속적인 문화 협업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기획함.

- 市는 2010년 교환방문 도시를 프랑스 파리市로 정함. 이번 전시회에는 베를린에서 13개, 파리에서 14개 갤러리가 참여하며 대부분 새로운 작가 발굴과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는 신생 갤러리임.

· 먼저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파리의 갤러리가 베를린을 방문해 전시회를 열었으며,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베를린의 갤러리가 파리에서 전시회를 열.

· 이번 행사는 두 도시의 갤러리가 자신이 발굴한 예술가를 상대 도시의 미술시장에 소개하고, 자기 도시의 미술시장과 상대 도시의 미술시장의 차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市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베를린의 예술가들이 파리의 미술시장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1/14/152023/index.html)

2. 연간 450만 명 이상 관광객 유치 (뉴욕)

○ 뉴욕市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됨. ‘NYC & Company’란 관광마케팅기관이 지속적으로 도시를 정화하고 도시안전을 개선함으로써 미국에서 올랜도市를 능가하는 관광객 유치 성과를 거둠.

- 市는 ‘레스토랑 주간’을 정해 관광객이 레스토랑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마케팅을 다양하게 펼침. 그 결과 연간 450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수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함. 이에 市는 2012년까지 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www.nyc.gov/html/om/html/2010a/media/pc010410_tourism.aspx)

3. 제조업체 유통세 감면제도 기간 연장 (브라질 상파울루州)

○ 브라질 상파울루 州정부는 119개 업종에 종사하는 제조업체가 브라질 국내에 없는 기계와 설비를 수입할 경우 유통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2010년 6월 30일 까지 연장 실시함. 또한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기계와 설비에 부과한 유통세를 최대 48회에 걸쳐 반환할 예정이었으나 일시불로 반환해주기로 결정함.

- 대신 州정부는 제조업체에 신규 투자와 공단 현대화를 장려할 계획임.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시행 중인 다양한 제조업체 장려책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州정부는 기계와 설비 수입에 대한 유통세 감면책을 2009년부터 시행하였는데 앞으로 기존 업종에다 24개 업종을 추가할 계획임. 이럴 경우 총 4억 4100만 헤알(약 2730억 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됨.
- 상품·용역 유통세 감면책은 약 9만 개의 제조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2011년 3월까지 천, 가죽, 포도주, 향수, 장난감, 개인위생용품, 식용유, 유제품 업종의 유통세를 18%에서 12%로 낮추고 알코올음료, 청소용품, 차량 부속품, 배터리, 전구 등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세 납부기한을 60일로 연장할 계획임.

(www.estadao.com.br/noticias/economia,sao-paulo-prorroga-isencao-de-icms-para-compra-de-maquinas,490901,0.htm)

4. 광역지역을 문화도시지역으로 지정해 경제 활성화 도모 (영국)

- 유럽연합은 1985년부터 가맹국 도시를 대상으로 유럽문화수도를 지정해왔는데 2010년 처음으로 도시(City)가 아닌 광역지역(Region)인 독일의 루르(Ruhr)를 유럽문화수도로 지정함.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광역지역을 문화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 광역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임.

-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 유럽문화수도로 지정된 리버풀市는 지정 이후 경제활동이 25% 증가하고 관광수입도 대폭 증가함.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 가맹국의 증가로 2032년까지 영국의 도시가 유럽문화수도로 지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더욱 권위 있는 행사 유치를 검토 중임.

(regenandrenewal.blogspot.com/2010/01/capital-gains.html)

한 줄 뉴스

- 뉴욕
 - 식품 생산자, 소비자, 식당을 대상으로 ‘소금 투입·섭취량 줄이기’ 캠페인 전개
- 리우데자네이루市
 - 산타크루즈 천문관에서는 단돈 1헤알(약 600원)로 즐기는 문화·천문학 프로그램 제공

5. 市 포털사이트를 관광마케팅회사와 공동 운영 (베를린)

- 베를린市는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도 베를린 공식 포털사이트 Berlin.de의 관광분야를 전략적으로 공동 운영할 기업으로 베를린 관광마케팅회사를 선정함. 이 회사는 베를린의 관광, 이벤트 등의 홍보와 관광 사업 중개를 위해 1993년 설립된 회사임.
- 市 포털사이트에서 관광분야의 숙박메뉴는 베를린 관광마케팅회사가 호텔협회와 함께 호텔 안내와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市는 포털사이트를 관광마케팅회사와 공동 운영하면 호텔 예약에서 나오는 수익금 등이 베를린의 관광산업 발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현재는 숙박 서비스로 제한되어 있지만 곧 베를린 관광정보도 베를린 관광마케팅회사가 재구성해 포털사이트에 올릴 예정임.
- 포털사이트 공동 운영으로 관광객이 市 포털사이트를 더 많이 방문하고 이용하게 될 것으로 市는 기대함.
 - 市 포털사이트는 한 달에 3000만 페이지뷰(Page View)를 기록하는 등 독일에서 가장 성공적인 도시 포털사이트로 꼽힘.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1/13/151933/index.html)

6. 엑스포 기간에 외국인 대상 홈스테이 프로그램 시행 (상하이)

- 상하이市는 엑스포 기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숙박 대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단기 숙박을 제공하는 ‘엑스포 가족’(Expo Family)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임. 엑스포 가족 프로그램이란 시민이 엑스포 기간에 자기 집을 민박시설처럼 공개해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하면서 상하이 시민의 삶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이는 2008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외국인에게 호평을 받은 홈스테이 프로그램과 유사함.
- 참여 가정은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고 가구가 비치된 10제곱미터 크기의 침실

과 1회용 칫솔, 치약, 슬리퍼 등을 제공해야 하며, 간단한 영어 구사능력을 갖추어야 함. 숙박하는 외국인은 애완동물을 반입할 수 없음.

- 市는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500가구를 확보하고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임.

(<http://cd.qq.com/a/20100115/003011.htm>)

건강 · 복지

7. 지역의료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제휴 수첩’ 시범 운영 (도쿄)

○ 도쿄都에는 암 진료 제휴 거점병원(14개소), 都 인정 암 진료병원(10개소), 국립 암센터 중앙병원 등의 암 진료병원이 있음. 그런데 암은 장기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므로 모든 거점병원이 제휴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 지역 내 의료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환자의 치료 시작에서부터 종료까지의 전체 치료계획을 기록한 수첩)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도쿄都는 도내 의료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5대 암(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크리티컬 패스를 정비하기로 하고 2010년 2월부터 크리티컬 패스인 ‘도쿄都 의료제휴 수첩’을 시범 운영함.

- 이 수첩은 암 환자가 수술 등 전문적인 치료 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환자의 5년 내지 10년간의 진료계획을 1권의 수첩에 정리한 것임.
- 환자는 전문 병원이나 기타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때 이 수첩을 지참하면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음. 암뿐 아니라 다른 병으로 진찰을 받을 때에도 환자의 병력과 진료기록이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1/20k18600.htm)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쿄都의 ‘5대 암 크리티컬 패스’ 정비정책은 암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진료수첩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진료하고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정책은 암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공공보건정보와 진료정보 공유사업을 추진 중임.
- 서울시 송파구 보건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8년 공공보건 정보화체계(e-Health)를 마련하여 진료정보를 전국의 의료기관과 공유하고 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되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의 공공보건 정보화사업 시범기관으로도 지정됨. 병원 간 진료기록을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진단·처방체계를 마련하고 중복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의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치위생사로 구성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인력을 활용해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을 펼침으로써 말기 암 환자의 증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는 공공보건 정보화체계 구축사업을 확대하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암 환자의 증가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에서 병원 간에 진료기록을 공유함으로써 암 환자의 장기적인 치료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함.

/노은이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eyn@sdi.re.kr)

8. 음식점 영수증에 칼로리 표시제 도입 (뉴욕)

- 미국 스탠퍼드대학교가 스타벅스의 영수증 1억 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市에서 음식점 영수증에 칼로리를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평균 250 칼로리 이상 섭취한 사람의 비율은 6% 감소했지만 스타벅스 매출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칼로리 표시제는 카페뿐 아니라 레스토랑 등에도 도입되고 있음. 건강에 신경 쓰는 시민에게 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b270a4a1d51bb3017bce0ed101c789a0/index.jsp?doc_name=/html/om/html/2010a/events_01.html)

(www.stanford.edu/~pleslie/calories.pdf)

9. 트랜스지방 사용 엄격하게 제한 (캘리포니아州)

- 미국 캘리포니아州에서는 2010년 1월부터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트랜스지방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됨. 州정부는 식당에서 1끼당 0.5그램 이상의 마가린이나 쇼트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달러(약 11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

- 이외에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법 규정이 신설되어 2010년 1월부터 시행됨.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등 4개의 카운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본인이 소유한 모든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부착하고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음주측정을 하도록 규정할 계획임.

(www.latimes.com/news/local/la-me-new-laws1-2010jan01,0,5818862.story)

10. 저소득층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한 연구결과 발표 (런던)

- 런던개발청이 외부기관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프로젝트 ‘Staying In, Moving Up: Employment Retention and Progression in London’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소득을 증대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보고서는 런던市를 대상으로 고용의 지속성을 저해하

는 요소, 이와 관련된 영국과 해외의 모범사례 등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런던개발청은 이번 연구결과를 2010~2011년 직업훈련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임.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미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실업상태에 있으며 취직을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실업상태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됨.
 - ② 취업연령대의 시민 5명 중 2명꼴로 실업자이거나 저소득 업종에 종사하고 있음.
 - ③ 단순노무 저소득 직종의 경우 10명 중 1명만이 일을 하면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음. 중간관리직이나 전문직의 경우 2명 중 1명꼴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임.
 - ④ 상대적으로 실업문제가 심각한 계층은 장애인, 청년, 방글라데시·파키스탄 출신, 한부모 가정으로 조사됨.
 - ⑤ 취업상태를 지속하지 못해 저소득에 시달리는 계층을 살펴보면 여성이 다수를 차지함. 특히 장애인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이거나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3479)

11. 노인에게 지급하는 동계 연료보조금 적극 홍보 (런던)

- 런던시는 노인들이 추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홍보함. 주당 50파운드(약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동계 연료보조금을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시는 노인들과 함께 템스강변에서 홍보 캠페인을 펼침. 저소득층 노인뿐 아니라 집을 소유하거나 민간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도 연료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알림.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687)

12. 노숙자 자립지원센터 설치 (도쿄)

○ 일본 도쿄都와 도내 23개 특별區는 ‘노숙자대책에 관한 都·區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노숙자대책을 추진해왔음. 그동안 23개 區를 5개 블록으로 나누어 노숙자의 심신 회복을 위한 긴급일시보호센터와 취업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센터를 한 블록에 1개씩 각각 설치했으나, 앞으로는 두 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자립지원센터를 블록마다 1개소씩 설치하기로 함.

- 최근 긴급일시보호센터인 아라카와 보호소가 폐쇄됨으로써 그 기능을 계승하는 시설로 자립지원센터 분교 보호소를 개소함. 새로운 자립지원센터는 노숙자가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임.

· 이용을 희망하는 노숙자는 특별구의 복지사무소에서 상담한 후 보호소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으며,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해 취업 상담과 자립 훈련을 실시함.

· 분교 보호소의 정원은 70명이며, 특별구에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 운영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1/20k1e600.htm)

한 줄 뉴스

● 쿠리치바市

- 방학 때 여행 갈 여건이 안 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방학 페스티벌’을 1월 중에 개최

● 런던

- 2012년까지 서민주택 5만 호 건설 추진

13. 아이티 대지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부운동 전개 (뉴욕)

○ 뉴욕市는 市 차원에서 미국 적십자사와 국경없는 의사회와 함께 아이티 대지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부운동을 펼침. 시민이면 누구나 市 홈페이지나 311서비스를 이용해 기부할 수 있으며 市 직원은 자동공제를 활용해 기부함.

- 이번 기부운동은 국제화시대에 도시 차원에서 이웃 나라와 이웃 도시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음.

(www.nyc.gov/html/fund/html/home/home.shtml)

14. 온라인으로 미공개 도시정보 공개 (런던)

○ 런던市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시민의 접근이 차단되어 왔던 대규모 데이터를 최근 무료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정보공개 혁명’을 추진한다고 밝힘. 市는 새롭게 개설된 ‘런던 데이터스토어’(London Datastore) 홈페이지(<http://data.london.gov.uk>)에서 2010년 1월 29일부터 공개함.

- 市는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640)

15. 화재 대응시간을 줄여 사망자 수 15% 감소 (뉴욕)

○ 뉴욕시는 2009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를 2008년 대비 15% 줄임. 이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시간을 4분 2초대로 대폭 줄이고 화재 발생과 관련된 공공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됨. 공공안전 교육은 지난 3년간 2만 회 이상, 연인원 150만 명 이상에게 10개 이상의 언어로 실시함.

- 공공안전 교육 시 강조하는 화재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음.
 - ① 전열기 근처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말고, 전열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잠 잘 때에는 반드시 끌 것
 - ② 전열기를 사용할 경우 여러 개의 전원코드를 동시에 사용하지 말 것
 - ③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것
 - ④ 주방전열기를 난방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www.nyc.gov/html/om/pdf/2010/2009_fdny_year_end.pdf)

16. 외국인을 위한 방재훈련 실시 (도쿄)

○ 도쿄都是 2010년 1월 19일 외국인을 위한 방재훈련을 실시함. 외국인 중 자원자를 대상으로 도쿄 문화회관에서는 재해 발생 시 긴급 연락하는 훈련을, 우에노 공원에서는 화재와 지진 발생 시 대응훈련을 실시함. 도청에서는 외국인 상담 접수, 훈련장 간의 연락, 외국인 지원기관 간의 연락 훈련 등을 실시함.

- 지진 등의 재해를 접해보지 못한 외국인들은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하지 못하고 언어 문제로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큼.
 - 都是 긴급상황에 대비해 방재 어학 자원봉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 12월 현재 17개 언어에 대해 739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음.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2/20jc4100.htm)

17. 성년식 참석자를 대상으로 ‘에코 캡’ 운동 전개 (일본 사이타마市)

- 일본에서도 만 20세가 되면 성년식을 열어 성인으로서 첫 발걸음을 기념함. ‘성년의 날’인 2010년 1월 11일 사이타마市는 성년식에 참가한 젊은이를 대상으로 ‘에코 캡’(Eco Cap) 운동을 벌임. 이 운동은 성년이 된 젊은이들이 모은 페트병 뚜껑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전 세계의 어린이에게 소아마비 예방 백신 등을 제공하는 운동임.



- 市는 성년식 참석 예정자에게 이 운동의 취지를 설명한 안내장을 보낸 결과 참석자 8769명에게서 약 3만 5000개의 페트병 뚜껑을 모을 수 있었음(사진 참조). 페트병 뚜껑은 국제연합아동기금에 보내 전 세계 어린이가 소아마비나 결핵 예방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요미우리신문, 2010년 1월 11일)

18. ‘승용차 대신 공공교통 이용하면 온실가스 감소’ 교육 실시 (일본 가나자와市)

-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는 ‘교통·환경 학습 프로그램’이 일본 이시카와縣 가나자와市에서 3년째 시행 중임. 이 사업은 자가용보다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데 목적이 있음.

- 시범사업이 실시 중인 다가미 초등학교와 시지마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가정에서 2대의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나자와市の 전체 자동차 보유대수는 1998년 약 29만 8000대에서 2007

년 32만 3000대로 증가한 반면, 열차 이용 승객 수는 1999년 2779만 명에서 2008년 2172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이들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 현상, 이상기후 피해실태 등을 가르침. 승용차 이용시간을 10분 정도 줄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0그램(2리터짜리 페트병 19개에 담을 수 있는 양) 줄일 수 있고, 버스를 이용하면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가르침(사진 참조). 이를 위해 학생 각자의 가족에게 공공교통 이용을 호소하는 편지를 쓰도록 함.



- 학생들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방학 중에 달성할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목표 달성으로 얻게 된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개학 후 발표하게 함. 자가용 이용시간을 4시간 줄인 학생도 있었고 부모의 협조를 얻지 못해 전혀 줄이지 못한 학생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승용차 이용시간을 약 55시간 30분 줄이는 성과를 얻음.
- 시범사업은 3년간 7개 학교에서 실시해왔음. 앞으로 市는 수업내용 등을 토대로 교사용 지도 매뉴얼과 교재를 만들 예정임.

(요미우리신문, 2009년 9월 17일)

한 줄 뉴스

● 영국 와링턴市

- 20만 제곱미터 크기의 매립지에 수영장, 건강증진센터, 커뮤니티 스포츠 빌리지 등을 조성해 '커뮤니티 스포츠 허브' 건설 추진

● 도쿄

-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폭력 예방 포스터를 제작해 철도역과 열차 내에 부착

19. 도로공사 허가제를 도입해 교통정체 해소 추진 (런던)

○ 런던市는 영국 내 최초로 자치구와 연계한 도로공사 허가제를 도입함. 각종 가스·수도시설 정비와 수리를 위해 도로를 파헤치는 보수공사 때문에 야기되는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현재 런던에 있는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 구간이 하루 평균 30만 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도로 굴착공사 허가제를 살펴보면 런던교통공사와 자치구가 일정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굴착공사를 하도록 계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음. 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공사를 할 경우 최대 5000파운드(약 93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사항을 위반해 공사를 할 경우에는 최대 2500파운드(약 467만 원)가 부과됨.
- 市는 또한 굴착공사 시 도로 점용료를 물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 중임. 도로 점용료를 공사 1건당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점용시간을 기준으로 물릴 계획임. 이렇게 하면 더 빨리 공사를 마치도록 유도할 수 있어 공사로 인한 교통정체나 기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도로 매설 관련 기관들도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율 행동지침을 2009년 4월부터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공사를 하거나 공사 안내 표지를 친절하고 상세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679)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市가 도입한 도로공사 허가제와 앞으로 시행할 예정인 굴착공사 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 허가 신청

전에 교통영향 분석 등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와 자치구는 교통개선대책 마련,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개최, 도로점용료 징수 등 런던의 도로공사 허가제보다 더 체계적인 교통소통 개선대책을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신성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ssi@sdi.re.kr)

한 줄 뉴스

- 영국
 - 7개의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산업전략' 발표
- 상하이
 - '2010 엑스포'에 전시할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이 상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세 환급
- 중국 하이난省
 - 유명 관광지인 하이난섬에 대형 쇼핑몰, 면세점 등을 설치해 국제적인 쇼핑센터로 조성

20. 음주운전 단속 강화로 여성 음주운전자 적발건수 증가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단속에 적발된 여성 음주운전자 수도 급속도로 늘어남. 2009년 10월에는 음주측정을 받은 여성 운전자의 38.6%, 2010년 1월에는 5.16%가 음주운전자로 적발됨.
- 단속에 적발된 여성 음주운전자 수가 늘어난 주요인은 음주운전단속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임. 2009년 상반기까지는 경찰이 외관상 음주운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만 음주측정을 했는데 대부분의 여성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음주측정을 받지 않음. 이렇다보니 연인들이 같이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에게 운전을 하도록 해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빈번했음.
 - 단속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것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자 자연히 여성 음주운전자 적발건수도 늘어난 것임.

(www.cruzeirodosul.inf.br/materia.phl?editoria=20&id=251217)

21. 엑스포 기간에 시행할 교통정책 마련 (상하이)

- 중국 상하이市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엑스포 기간에 시행할 교통정책을 최근 발표함. 행사기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한꺼번에 관람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주요 행사일정을 일자·시간·장소별로 적절하게 나누고 교통상황에 따른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임.
- 엑스포 기간에 시행할 교통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교통서비스 핫라인 개설: 대중교통노선, 환승방법, 관람객 유입규모 등을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개설하고 최적의 경로와 대안을 안내함.
 - ② 이동 표지판 설치: 도로상에 이동 표지판을 설치해 실시간 도로상황과 목적지까지의 도착 예측시간, 교통사고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함.

- ③ 이동통신· 이동단말기 활용: 휴대전화나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으로 도로의 실시간 교통상황, 교차로 개방 여부, 교통사고 등의 정보를 제공함.
- ④ 교통 가이드북 배포: 엑스포 행사장으로 향하는 교통망을 소개하는 책자를 제공함.
- ⑤ 라디오와 TV의 교통안내 방송: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관람객과 시민에게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함.
- ⑥ 성급(星級) 호텔에 터치스크린 설치: 성급 호텔에 터치스크린 단자를 설치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알려줌.
- ⑦ 관람객 과다유입 경보시스템 구축: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관람객 과다유입 경보시스템을 구축함. 특정 지역이나 시간대에 관람객 수가 일정 규모를 넘어섰을 경우 각각 3급 황색, 2급 주황색, 1급 빨간색으로 경보를 울리고 경보 등급별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관람객의 추가유입을 통제함.
- ⑧ 교통관리시스템 운영: 엑스포 행사장 주변 25km 이내 신축 공사를 금지하고 45km 이내에서는 주택의 철거, 지하 기초공사, 콘크리트 공사를 금지함. 긴급 공사와 市에서 허가한 공사 외에는 간선도로 공사를 금지하고 오토바이 운행도 통제함. 노선에 따라 버스를 일시 운행 정지하고 2부제, 5부제, 10부제 등 차량 운행 통제방안도 교통상황에 맞게 시행함.

(<http://sh.xinmin.cn/minsheng/2010/01/08/3290066.html>)

(<http://finance.sina.com.cn/china/dfjj/20100108/15517215631.shtml>)